

세월호 침몰사고 실종자 모두가 가족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하는 일은 이제 온 국민의 마음이다. 중단에서도 진제 종정예하부터 진도사암연합회, 전국 각지 릴레이기도를 위해 발길을 옮겨 정성을 다하고 있다. 사진은 사고 37일째 팽목항을 찾은 총무원장 자승스님을 비롯한 종단 집행부 스님들의 기도 모습.

신재호 기자 air501@ibulgyo.com



‘세월호’ 극복하는 길 ‘팔정도’에 있다



세월호 침몰 사고 후 연일 막말과 막행이 여론의 질타를 받고 있다. ‘파문’이라는 단어도 언론에 오르고 있다. 최근 들어서는 우리 사회의 마지막 보루가 돼야 할 종교계도 못매를 맞고 있다. 한겨레신문 보도에 따르면 지난 20일 한국기독교총연합회 긴급임원회의에서 부회장인 조광작 목사는 “가난한 집 아이들이 수학여행을 경주 불국사로 가면 될 일이지, 왜 제주도로 배를 타고 가다 이런 사단이 빚어졌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조 목사는 이어 “천안함 사건으로 국군 장병들이 숨졌을 때는 온 국민이 경건하고 조용한 마음으로 애도하면서 지나갔는데, 왜 이번에는 이렇게 시끄러운지 이해를 못하겠다. 박근혜 대통령이 눈물을 흘릴 때 함께 눈물 흘리지 않는 사람은 모두 다 백정”이라고 말했다.

또한 오정현 사랑의교회 목사는 지난 4월 미국 남가주 사랑의교회 세미나에서 “여러분 아시지만 한국은요. 이번에 정몽준 씨 아들이 (세월호 희생자와 실종자 가족들을 향해) ‘미개하다’고 했잖아요. 사실 잘못된 말이긴 하지만 틀린 말이 아니거든요요”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우리 국민들은 하루아침에 ‘미개인’과 ‘백정’으로 전락했다. 또한 불국사는 ‘가난한 사람들이나 수행여행을 가는 곳’이 돼 버렸다. 타종교인이 자신의 종교집단에서 한 말이라고 심본 양보해도 지난 1995년 석굴암과 함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불국사를 뒤흔들었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다.

우리나라는 물론 전 세계에서 세월호 참사를 지켜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금치 못하고 있다. 유가족들에게 따뜻한 위로의 말을 건네거나 따뜻하게 보듬어주는 등 추모 물결에 동참하지는 못하더라도 희생자와 유가족, 더 나아가 우리 국민의 가슴에 못을 박는 일은 하지 말아야 한다.

이웃종교인 개신교가 여론의 못매를 맞고 있지만 강 건너 불구경처럼 지나갈 일은 아니다. 팔정도(八正道)를 통해 바른 생각과 말, 행동 등을 강조하셨던 부처님의 가르침을 다시 한번 머릿속에서 되새기고 언행으로 실천하는 불자가 되길 지원하는 계기로 삼길 바란다. 팔정도를 실천함으로써 우리 사회를 보다 건강하고 행복하게 하는 것이야말로 세월호 희생자를 기약하고 잊지 않는 또 다른 실천이기 때문이다.

“하루속히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소서”

“어두운 바다에서 생을 마감한 이들이 밝은 세상에 태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더 불어 이 순간에도 출고 낫선 바다에서 나오지 못한 실종자들이 하루속히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스님을 비롯해 중앙종무기관 및 산하기관 스님들이 지난 22일 여객선 세월호 참사가 벌어진 진도 앞바다를 향해 그 어느 때보다 간절한 기도를 올렸다. 팽목항은 희생자들의 극락왕생과 실종자들이 하루빨리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길 바라는 스님들의 염원으로 가득했다.

종단은 지난 20일 세월호 희생자를 위한 추모제를 원만히 회향한데 이어, 이날 오전 총무원장 자승스님, 총무부장 종훈스님, 기획실장 일감스님, 재무부장 보경스님, 호법부장 원명스님, 교육부장 정도스님, 포교부장 송목스님, 사회복지재단 상임이사 원경스님, 불교문화사업단장 진화스님, 공익법인 아름다운동행 사무총장 자공스님 등 스님 60여 명이 동참한 방문단을 꾸려 참사 현장인 진도 팽목항을 방문했다.

사고 37일...종단 봉사단
실종자 가족은 물론
구조작업 나서는
잠수사들까지 보살피

총무원장 자승스님 등
종단 집행부 팽목항 방문
봉사단 활동 격려하고
유족 만나 위로 전해

방문단은 이날 오전11시 팽목항에 도착해 먼저 현지에서 자원봉사를 펼치고 있는 종단 스님들과 자원봉사자들을 격려했다. 이어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팽목항에 마련된 임시법당에서 종도들을 대표해 등 공양을 올리고 현장을 방문한 조계총림 송광사 주지 무상스님, 고불총림 백양사 주지 진유



무엇이든 다해주고 싶은 마음이지만 “하루속히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길 기도하겠다”는 말만 되풀이할 때도 적지 않다. 사진은 희생자 가족을 위로하고 팽목항 임시법당에서 기도하는 스님들 모습.

스님, 제19교구본사 화엄사 주지 영관스님, 제22교구본사 대흥사 주지 범각스님 등과 함께 천수경 독송, 관음기도 정근, 축원으로 희생자들의 극락왕생을 발원했다.

또 긴급재난구조봉사단 현지 본부장을 맡고 있는 진도 향적사 주지 범일스님에게 피해자 가족을 위한 성금을 전달했다. 이어 방문단은 팽목항 방파제를 관음정근으로 한 바퀴 도는 ‘안행(雁行)’을 한 뒤 사고 해역을 바라보며 반야심경을 봉독했다. 자승스님은 노란 리본에 “여러분들을 위해 항상 기도하겠습니다”라고 적어 팽목항 방파제에 걸었다.

이와 더불어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종단 주최로 열린 세월호 추모제에서 ‘아들에게 보내는 편지’를 낭독한 고 제세호 학생의 아버지 제삼열 씨와 김진명 단원과 교장을 만나 108염주와 합장주를 전달하며 위로의 뜻을 전했다. 자승스님은 이 자리에서 “많이 힘드시겠지만, 허리를 펴고 너무 위축되지 마시고 힘을 내시길 바랍니다”고 위로했다. 이에 제삼열 씨는 “종단에서 스님들이 오신다는 말을 듣고 직접 뵈고 감사

의 인사를 전하기 위해 찾아뵈게 됐다”고 화답했다.

사고 37일 째를 맞은 이날 현재 세월호 참사로 인한 사망자는 288명, 실종자는 16명으로 집계됐다. 종단은 참사 발생 다음날인 4월17일 진도실내체육관과 팽목항에 복지재단 산하 긴급재난구조봉사단을 파견해 활발한 활동을 펼쳤다. 현재도 봉사단 본부장을 맡고 있는 향적사 주지 범일스님, 주 본부장인 미항사 주지 금강스님, 쌍계사 주지 진현스님을 비롯해 팽목항 법당 도감 하륜스님과 자원봉사자들이 실종자 가족들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다.

미항사 주지 금강스님은 “종단 봉사단은 진도실내체육관에서 초기부터 떡과 죽 등을 제공한 것을 시작으로 팽목항을 오가며 실종자 가족은 물론 구조작업에 나서고 있는 잠수사에도 음식과 물품을 제공하고 있다”면서 “더불어 팽목항 법당에서 릴레이 기도가 끊이지 않고 있는 등 실종자의 조속한 귀환과 유족들의 아픔을 달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진도=허정철 기자 hjc@ibulgyo.com

“부모 형제 입장이 되어”

“세월호 참사로 목숨을 잃은 어린 생명들과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유가족들을 위해 이 추모곡을 바칩니다.”

지난 21일 김포 중앙승가대 본관 4층 대강당. 진도 팽목항 임시법당에서 희생자들을 위해 기도를 해온 중앙승가대 총학학회(회장 덕성스님)가 이번에는 ‘세월호 참사 추모음악회’를 열었다. 이 음악회는 공업중생으로서 참회와 발원을 통해 사회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가기를 기원하는 뜻에

서 마련됐다.

공연에 앞서 학인 스님들은 희생자들을 위한 묵념의 시간을 가졌다. 이어 무형문화재 제8호 살풀이춤 이수자인 오서영 씨가 춤으로 희생자들의 넋을 추모했다. 음악회는 신이나, 이지영 씨의 음성공양, 추모시 낭송, 하니 밴드의 찬불가 공연 등으로 90여분 간 진행됐다.

이날 학인 스님들은 세월호 참사 수습이 마무리될 때까지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동

세월호 침몰사고 공업중생 ‘참회’
중앙승가대 총학학회 추모음악회

현스님은 “우리 모두 부모 형제의 입장이 되어 아픔을 나눴으면 한다”며 “어둠 속에서 목숨을 잃은 이들이 밝은 세상에 태어날 수 있도록 염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향덕스님은 “고질적인 관료주의가 불러온 문제”라며 “사람과 생명의 가치가 우선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불교가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앙승가대 총학학회는 앞으로도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한 실종자들의 무사



지난 21일 김포 중앙승가대에서 열린 ‘세월호 참사 추모음악회’에서 학인 스님들이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묵념을 하고 있다.

귀환을 발원하는 기도를 이어갈 예정이다. 학인 스님들은 지난 4월25일 진도 팽목항

임시법당에서 극락왕생 기도를 시작으로 안산 합동분향소,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의 3000배 철야정진 등에 동참했다. 지난 16일은 고려대 안암병원 장례식장에서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안산 단원과 학생을 위한 시다림 기도를 하고 유가족들을 위로했다. 20일 서울 조계사에서 봉행된 ‘세월호 희생자를 위한 추모제’에도 참여해 108참회정근을 하는 등 추모활동에 앞장서고 있다.

총학회장 장덕성스님은 “시대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고 함께하는 것이 출가자 본연의 자세”라며 “실종자들이 무사히 돌아올 때까지 기도정진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포=홍다영 기자 hong12@ibulgyo.com

제198회 중앙종회 임시회 소집 공고

종헌 제39조 및 중앙종회법 제14조, 제15조 규정에 따라 제198회 중앙종회 임시회를 다음과 같이 소집합니다.

－ 다 음 －

- ▶ 집회일시 _ 불기2558(2014)년 6월 25일(수) 오전 10시
- ▶ 회 기 _ 불기2558(2014)년 6월 25일(수) ~ 29일(일) (5일간)
- ▶ 집회장소 _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
- ▶ 주요안건 _ 1. 종헌 개정의 건
2. 종법 제·개정 의 건
3. 기타

◆ 의안 접수 기한 : 6월 18일(수)까지 – 우편 또는 FAX(02-733-8286) 등 접수

※ 중앙종회의원 스님께서는 가사장삼을 착용하시고 본회의에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